

# 한국은 지금 '불신의 늪'에 빠졌다

## KDI 사회적 자본 실태 조사

국회와 정당,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기업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 법원, 경찰, 군대 역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국 1천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통해 실시한 국내 최초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공직기관·공직자 불신 심각=보고서에 따르면 공직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응답에 대한 점수를 냈다

니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는 각각 5.4점으로, 0~10점 척도의 중간값인 5점을 간신히 넘었다.

나머지 부분은 언론·군대 각 4.9점, 대기업 4.7점, 노동조합 4.6점, 경찰 4.5점, 법원 4.3점, 검찰 4.2점, 지자체 3.9점, 정

## 국회·정부·검찰 신뢰 바다...학연·혈연·지연 관계 중시

## 국민절반 동창회 활동...환경·동물단체 가입 2.1% 그쳐

부·정당 각 3.3점, 국회 3.0점 등으로 중간값인 5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회·정당·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인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고 경찰의 법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사람에 대한 불신=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0(불신)~10점(신뢰)에서 중간값인 5점에 미달하는 4.8점으로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1년 실시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6.

6점, 일본 4.3점, 미국 3.6점, 한국 2.7점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서울·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등 4개지역으로 나눴을 때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는 호남지역이 가장 높고 서울·경기·강원과 영남지역이 가장 낮았다. 영남과 충청지역 거주자들은 경찰·검찰·법원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연줄(줄대기문화 실태='연줄'에 기대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동창회나 향우회 등 학연, 혈연, 지연 중심의 전통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줄 문화에 대해 응답자의 50% 이상이 '연줄 행사에 대한 부탁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연줄 행사에 대한 부탁을 한 일도 전혀 없다'는 답변도 43.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커 광주는 약 25%만이 연줄 행사 부탁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충북은 연줄 행사 부탁을 하거나 받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사회적 관계망 가입 비율은 동창회가 가입률 50.4%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 24.7%, 친종회 22.0%, 스포츠·야외 레저 동호회 21.5%, 향우회 16.8% 등이었다. 환경·동물보호단체는 2.1%로 가장 낮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환승 감내해야 할 7가지 이유



김주정

사회1부 차장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에 따른 환승 불만이 거세다. 2~3번씩 갈아타야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한데서 나온 불만이다.

양동시장이나, 남구 노대마을 등 일부 노선배정에 만족하지 못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통학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다.

무로 환승이 잘 안 되거나,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노선도 있다. 시행 초기에 당연히 있을 법한 혼선들이고, 준공영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이제 광주시민들도 '환승 불편'은 참고 적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손해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첫째는 한정된 시내버스 자원을 광주시민들이 고루 나눠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노선개편으로 그동안 거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았던 신 주택가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둘째, 잘만 갈아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예전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 초기에 배차간격이 30분이 넘는 노선도 있기는 하나, 구간별 버스를 조정하면 평균 10분대 배차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예전에 1시간 걸리던 노선이 30분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의 도로 점유율은 9.5%이지만 승수 분담률은 37.5%다. 반면 승용차는 점유율이 69.8%이지만 분담률은 27.3%에 불과하다. 시내버스가 더 많이 다녀야 광주시의 대기오염이 줄게 된다. 갈아타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걷는 것도 덩이다.

넷째,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저조했던 지하철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지하철-마을 버스를 연계한 100개의 통합 대중교통체계를 가동한 뒤 지하철은 80%, 마을 버스는 30% 정도 승객이 늘었다.

다섯째, 시내버스가 잘 달려야 시민 경제부담이 줄어든다. 연 8천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은 물론 매년 15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연례 행사가 되다시피한 시내버스 파업을 막을 수 있고, 급정차·급제진 등 난폭운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직전 현대교통 노조원들이 체납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려 했을 때,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을 노조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파업을 막았다.

일곱째,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은 그 자체가 도시경쟁력이다. 투자유치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시내버스는 잘 달려야 한다.

출근 길에 자가용 승용차를 놔두고 시내버스를 타보자.

/ jjnews@kwangju.co.kr

## 산업기술 유출·국제범죄 "꼼작마" 거듭나는 국정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외교통신부에서 열린 기념판 제막식에서 유엔 192개 회원국의 국기와 유엔 엠블럼으로 만들어진 기념판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靑, 반기문 총장에 '국가원수급' 의전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일시귀국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초청, 면담했다.

이날 반 총장의 노 대통령 예방은 지난 14일 사무총장 취임선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청와대는 반 총장이 당선된 이후부터 선서 전까지의 4차례 접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공식적인 국가정상급 의전으로 예우했다.

승용차를 이용해 노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 현관 앞에 도착한 반 총

장은 대기중이던 이병완 비서실장의 안내로 방명록에 서명을 한 뒤 2층 접견실로 향했다.

노 대통령은 집무실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이 실장의 안내를 받은 반 총장과 함께 접견실로 들어가 환담했다.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반 사무총장의 취임선서를 축하하면서 유엔사무국 개혁 등 현안과 국제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 역사에 남는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국정원이 산업보안과 국제범죄를 막아내는 첨병으로, 기업체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정원이 울들어 지난 11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기도를 사전에 막아낸 사례는 모두 32건. 관련 업계에선 이들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24조3천618억원 상당의 피해가 우려됐다고 진단했다.

국정원 광주지부는 지난해 5월 관내 첨단산업체 P사가 보유한 광통신 부품 핵심공정 기술을 호주의 경쟁업체로 빼돌리려 한 교수와 연구원 등 6명을 적발해 1조8천억원대의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 광주지부는 또한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안보 관련 자료를 지원하고 지자체나 기업체들의 해외투자 유치, 무역상담때 각종 해외 정보를 지원해 주는 등 대민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제범죄나 테러 분야에서 빛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3월 모 방송기자가 해외에서 납치됐을 당시 대테러 정교한 정보를 제공해 조기에 해결했고, 속성 제조공법을 이용한 필로폰 밀조공장 적발 등 160여건, 1천136명의 국제범죄

혐의자를 색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국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국정원이 참여정부 이후 '탈정치·탈권력화'로 조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전략을 적극 추진해온 덕분이다. 국익정보 활동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분야 인력을 줄여 산업보안과 국제범죄 등 현업부서로 재배치함으로써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정원 출신으로 최초로 내부 발탁된 김만복 국정원장 취임 이후 김 원장이 원칙적으로 내세운 정치적 중립과 지역적 인사균형이 원리에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투자 가이드북' 등 경제정보와 기술보안도 노후, 북한 관련 정보를 기업과 연구소, 언론 등에 적극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앞으로 배달된 손도끼와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황 전 비서의 사진.

## 황장엽 前北노동당 비서에 비난 경고문·흥기 배달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비난하는 경고문과 도끼가 든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황 전 비서가 위원장으로 있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22일 수취인이 '황장엽'으로 적힌 종이박스가 배달돼 뜯어보니 핏발 페인트를 칠한 황 위원장 사진과 경고장, 도끼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경고문'에는 황 전 비서의 최근 강연 사례와 함께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핏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등의 비방글이 적혀 있었다. 자유북한방송은 이 사실을 양천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자이리**




목재가공산업의 모든것 **"자이리"** 이젠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자이리"**와 상의하세요!

◎ 자이리 사업분야 ◎

- 가구산업(사무용, 생활)
- 가구사업
- 목재제품사업
- 목재수입사업
- 일반가공품
- 목재수입사업



목주·전남 목재가공산업진흥조합  
 대표전화) 061-337-5535  
 팩스) 061-334-5535